

『說文解字』重文의 內容 및 字例 研究*

- 或體와 俗體의 字例 분석을 위주로

오제중**

<目 次>

1. 緒 論
2. 『說文解字』重文의 개념
3. 『說文解字』或體와 俗體의 내용
 - 1) 或體
 - 2) 俗體
 - 3) 或體와 俗體의 관계
4. 『說文解字』或體와 俗體의 字例 분석
 - 1) 或體의 字例
 - 2) 俗體의 字例
5. 結 論

1. 緒 論

『說文解字』¹⁾에는 표제자로 수록된 小篆 이외에 다양한 異體字가 함께 실려 있는데 이를 重文이라고 한다. 重文에는 篆文, 古文, 籀文, 奇字, 秦石刻, 通人, 今文, 轉引, 或體, 俗體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許慎은 敍文에서 重文의 숫자를 1,163자라 하였다.²⁾ 그러나 清代 段玉裁는 注에서 그 숫자를 1,279자로 늘렸

* 이 논문은 2013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이하 모두 『說文』으로 줄여 적는다.

2) 許慎 『說文·敍』「重一千一百六十三」重文의 수량에 관해서 許慎은 『說文』본문의 매 部首의 끝에 숫자 표기의 방식으로 중문의 수량을 밝히고 있으며 1,163은 이것을 모두 더한 수치이다.

으며 이후 重文의 숫자는 大徐本과 小徐本 등 여러 판본을 거치며 수록되는 과정에서 늘어나거나 혹은 특정 글자를 중문으로 인정하는 견해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³⁾ 清末의 王國維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重文의 실체와 가치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나 대부분은 주로 古文과 籀文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⁴⁾ 許慎 역시 敍文에서 『說文』에 수록하고 있는 문자의 절대 다수는 篆文이며 이것과 별도로 古文과 籀文이 수록되어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다른 重文에 비해 이들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었다.⁵⁾ 실제로 이러한 古文과 籀文이 周代의 金文 및 이후 戰國文字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古文字의 변천 과정 파악에 중요한 핵심 요소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역대 연구자들이 나머지 重文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으며 결과적으로 연구 성과 역시 다소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古文과 籀文을 제외한 나머지 重文, 그 중에서도 或體와 俗體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⁶⁾ 或體는 『說文』의 重文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형 연구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俗體는 당시 민간에서 사용되었던 통속적인 자형의 일종으로 正體와의 비교를 통해 역시 자형 간의 관계 파악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或體와 俗體의 실체를 파악하고 字例를 검증하여 『說文』重文의 진정한 가치를 밝히고 아울러 許慎이 이것을 字書에 수록한 의도를 찾는 것이 본고의 주요한 연구 목적이다.

3) 祝敏申은 大徐本과 小徐本을 함께 교감한 결과로 『說文』에 수록된 重文은 모두 1,285자라는 새로운 통계를 내었다. 『說文解字』與中國古文字學, 242쪽. 이러한 수치상의 차이는 전체 수록하고 있는 重文 총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별 重文 자형의 종류별 수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4) 王國維「說文所謂古文說」, 『觀堂集林』. 王國維「戰國時秦用籀文六國用古文說」, 『觀堂集林』.

5) 許慎『說文·敍』「今敍篆文, 合以古籀」(진문을 위주로 하되 고문과 주문을 참조한다).

6) 重文의 명칭에 있어서 或體는 別體라고도 칭하며 俗體는 俗字라고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或體와 俗體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2. 『說文解字』重文의 개념

중국의 문자학 발전 역사에서 重文과 같이 대량으로 異體字의 정리를 시도한 이는 바로 許慎이다. 『說文』을 비롯한 역대 字書에서 문자의 수록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바로 서로 다른 字形의 증가에 있다.⁷⁾ 이처럼 異體字는 한자 자형의 발전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說文』에 이와 같은 다량의 重文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許慎이 그것의 중요성과 字書에서의 異體字의 학술적 활용 가치를 인지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처럼 『說文』에서 重文이라는 體例를 확립한 것은 字書 편찬에 있어서 許慎의 독창적인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六書의 사례와 같이 重文에 속하는 각 자형의 개념 및 내용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추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重文의 개념에 관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는 바로 이것을 異體字의 일종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즉 문자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필수 요소 形音義 가운데 字音과 字義는 완전히 일치하지만 오로지 字形만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시각이다. 그러나 일찍이 清代 段玉裁와 같은 학자는 일부 重文 중 순수한 異體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⁸⁾ 이것은 바로 重文 가운데는 같은 발음이지만 뜻이 다른, 즉 순수한 異體와 구별되는 사례가 일부 있다는 것을 이미 발견했다는 증거이다. 이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일종의 假借와 同義換讀 등의 관계로 重文을 파악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⁹⁾ 이러한 내용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주장한 이는 바로 沈兼士로 그는 일종의 異體字로 重文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

7) 王鳳陽 『漢字學』, 539-543쪽. 『說文』이래로 10권의 字書, 詞書, 韻書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새롭게 증가된 글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異體字이다.

8) 許慎 『說文』一篇上, 氣部. 『說文』의 或體 字例에 대해 「氛, 祥氣也. 從氣分聲. 霧, 氛或從雨.」(氛은 상서로운 기운이다. 뜻 부분인 氣와 소리 부분인 分으로 이루어져 있다. 霧은 氛의 흑체로 뜻 부분이 雨로 구성되어 있다.) 段注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霧與祥氣之氣各物, 似不當混而一之.」(霧과 상서로운 기운을 의미하는 氛은 서로 다른 글자로 이들을 하나로 섞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9) 蔣善國 『說文解字講稿』, 32쪽. 蔣善國은 일반적인 異體字의 개념으로 重文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字音은 같으나 字形과 字義가 서로 다른 通假字의 개념으로도 重文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重文을 바로 異體字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¹⁰⁾ 그리하여 그는 重文의 종류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許書重文包括形體變易、同音通借、義通換用三種性質，非僅如往者所謂音義悉同形體變易是爲重文。¹¹⁾ (허신 자서의 중문에는 자형이 변한 것, 같은 발음의 것을 빌린 것, 뜻이 통하여 서로 바뀌서 사용한 것의 세 가지 종류의 것이 들어있다. 과거 사람들이 말한 바와 같이 발음과 뜻이 모두 같으나 자형이 다른 것만이 중문이 아니다.)

즉 전통적인 시각과 달리 重文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字音과 字義는 서로 같으나 字形이 다른 異體字로 重文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或體는 대부분이 이러한 異體字에 속한다. 다음은 동일한 발음의 문자를 빌려서 사용하는 假借字 그리고 문자와 발음은 비록 다르지만 뜻이 서로 같은 同義字이다.¹²⁾ 전통적인 異體와 구별되는 내용에 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漢人注音，不僅言同音通用，且以明異音同用，非如後世反切之但識讀音而已。通用者，義異而音通，卽假借之一種，人習知之；同用者，辭異而義同；音雖各別，亦可換讀。此例自來學者均未注意及之。¹³⁾ (한대 사람들의 발음 표기는 같은 발음의 것으로 통용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발음이지만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후세의 반절과 같이 단지 독음만을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통용은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통하는 것과 같은 가차의 일종으로 사람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 10) 於是知重文之定義，昔人以爲音義悉同改易殊體者之未爲愜當。」(과거 중문의 정의를 발음과 뜻은 모두 같으나 자형만이 다른 것으로 여긴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各家習於重文之定義爲音義相離改易殊體，遂不得不強爲之辭。」(많은 이들이 중문의 정의를 발음과 뜻은 같으나 자형이 다른 것으로 여기는 것에 익숙하여 부득불 억지로 이를 풀이하였다.) 沈兼士「漢字義讀法之一例-『說文』重文之新定義」, 『沈兼士學術論文集』, 238쪽, 244쪽.
- 11) 沈兼士「漢字義讀法之一例-『說文』重文之新定義」, 『沈兼士學術論文集』, 239쪽.
- 12) 이러한 異體字, 同音字 그리고 同義字 이외에 同源字의 관계로 重文을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 소위 同源詞는 같은 語源을 가지고 있는 발음이 같고 의미가 서로 통하는 어휘를 말한다. 同源字는 이러한 同源詞를 기록하는 서로 다른 자형의 한자를 지칭한다. 張曉明, 李薇「從『說文』重文看漢字字際關係的研究」, 88쪽.
- 13) 沈兼士「漢魏注音中義同換讀例發凡」, 『沈兼士學術論文集』, 311쪽.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것으로 발음은 비록 각자 다르지만 바뀌어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지금까지의 학자들이 모두 주의하지 못한 것이다.)

漢代의 발음표기에는 순수한 발음만을 고려한 直音法, 讀若法 그리고 反切法 등이 있다. 위의 문장은 이러한 注音法 이외에 同音假借와 同義字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발음을 표기하는 注音法, 문자의 활용법인 假借字 그리고 훈고학적 의미의 同義字를 모두 인용하여 重文 분류에 대입하려는 것은 각 영역의 범주를 벗어나는 다소 무리한 시도로 사료된다. 許慎이 편찬한 『說文』의 본질은 字書이며 여기서 다양한 重文을 수록하고 있는 본래의 의도는 기본 자형인 小篆에 대비되는 순수한 異體字의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假借字와 同義字 등이 함께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따름이지 許慎 자신이 이러한 것을 重文에 포함시켜 의도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沈兼士 자신도 異體字 개념의 重文을 正例로 정의하고 나머지 사례를 일종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說文』重文於音義相譬形體變易之正例外，復有同音通借及義通換用二例，一爲音同而義異，一爲義同而音異，皆非字形之別構，而爲用字之法式。緣許君取材，字書而外，多采自經傳解詁，其中古今異文、師傳別說，悉加甄錄，取其奇異或可疑者，別爲重文，此同音通借、義通換用二例之所由來也。¹⁴⁾ (『설문』 중문은 발음과 뜻이 서로 같으나 자형이 다른 정식 사례 이외에 ‘동음통차’ 및 ‘의통환용’의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하나는 발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뜻은 같으나 발음이 다른 것으로 모두 자형이 다른 구조가 아닌 문자를 활용하는 법칙이다. 허신이 자료를 취한 연유를 살피면 자서 이외에 많은 경전의 훈고에서 가져온 것으로 거기에는 고금의 서로 다른 문자와 전해지는 이설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기이하거나 혹은 의심이 가는 것을 취하여 별도의 중문으로 삼았다. 이것이 바로 ‘동음통차’와 ‘의통환용’ 두 가지 사례의 유래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古今의 다른 문자와

14) 沈兼士 「漢字義讀法之一例-『說文』重文之新定義」, 『沈兼士學術論文集』, 240쪽.

異說 등을 꼽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許慎 본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혹은 여러 판본을 거치면서 타인의 손에 의해 잘못 수록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重文에는 순수한 異體字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字例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을 『說文』 重文의 한 종류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沈兼士도 이러한 것을 ‘用字之法式’이라 하여 일종의 活用法으로 여기고 있다. 흔히 六書에 대해 전부가 造字法인지 혹은 그 중 轉注와 假借는 活用法인지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轉注와 假借가 다른 네 가지 造字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이에 비추어 重文에서 소위 假借와 換用에 해당하는 사례가 보편적인 異體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을 굳이 별도의 한 종류로 독립하여 구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것 보다는 許慎의 원래 의도대로 重文을 포괄적인 異體字의 범주로 보는 것이 정확하며 나머지는 일종의 특수한 예외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說文解字』 或體와 俗體의 내용

1) 或體

大徐本과 小徐本을 함께 교감한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說文』에 수록되어 있는 或體는 모두 499개로 重文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¹⁵⁾ 이것은 역시 重文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古文이나 籀文에 비해서도 많은 수량이다.¹⁶⁾ 이들 세 종류의 重文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오십 자 미만의 소량으로 或體의

15) 祝敏申 『『說文解字』與中國古文字學』, 242쪽. 이하 본고의 或體와 俗體 등의 重文 수록 숫자는 祝敏申의 통계 결과를 따른다.

16) 『說文』에 수록되어 있는 古文과 籀文의 숫자는 학자들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인다. 王國維는 『說文所謂古文說』에서 「全書中所有重文古文五百許字」(전체 『說文』 가운데 중문인 고문이 오백 자 정도 들어있다.)라고 적었다. 『觀堂集林』, 315쪽. 그러나 祝敏申은 『說文』에 수록된 古文과 籀文은 각각 479자와 213자라고 통계를 내었다. 『『說文解字』與中國古文字學』, 242쪽.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或體는 許慎이 고대 典籍 등의 자료 가운데 자형이 같지 않은 것을 선별한 것으로 小篆 또는 古文, 籀文 등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說文』 古文은 孔子의 구택에서 발견된 經書와 張蒼이 바친 『左傳』 등을 말하며 이러한 古文은 春秋戰國 시기 이래 발달한 것으로 주로 東方六國에서 사용되었다. 결국 『說文』에서 수록하고 있는 古文은 모두 古文經書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로는 戰國시대의 문자이다. 한편 籀文은 周宣王 시기의 史官이었던 史籀가 『史籀篇』에 사용된 西周 시기의 문자이다. 이러한 籀文은 西周 말년에 정리되어 東周 시기의 문자로 통용되었으며 후일 許慎은 이를 『說文』에 수록한 것이다.¹⁷⁾ 이와 같이 西周 시기의 籀文, 戰國시기의 古文 그리고 秦代의 小篆 등은 모두 서로 다른 역사 시기에 출현한 문자로 이로 인해 각각의 자형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에 반해 或體는 보편적으로 필획이 비교적 간단한 자형으로 秦始皇의 문자통일 정책에 의한 규범화를 거치지 않은 일종의 小篆에 대한 異體로 알려져 있다.¹⁸⁾ 따라서 일부 或體는 시대에 따른 자형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류를 이루는 것은 동일한 시대에 보이는 서로 다른 자형으로 같은 시기 동일한 문자에서 발생한 異體字를 지칭한다.¹⁹⁾ 이러한 或體의 표현 방식은 통상 異體字 뒤에 ‘或’자를 더해 或某, 或從某, 某或省, 或從某省 등으로 표기한다. 이밖에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又, 亦, 或又 등으로 적는다. 결론적으로 古文과 籀文 그리고 篆文 등은 서로 다른 시기의 字形상의 차이에 속하지만 或體와 俗體 등은 동일한 시기의 서로 다른 字形을 지칭하는 것으로 넓은 범주의 異體字에 속한다.

17) 吳濟仲 「『說文解字』古文의 內容 및 字例 분석」, 吳濟仲 「『說文解字』籀文과 『史籀篇』 연구」.

18) 許慎 『說文解字敘』, 「分爲七國, 田疇異畝, 車塗異軌, 律令異法, 衣冠異制, 言語異聲, 文字異形」(전국칠웅의 국가들은 밭과 이랑의 경계가 서로 다르고, 수레가 다니는 길이 서로 다르고, 율령의 법도가 서로 다르고, 의관의 제도가 서로 다르고, 언어가 서로 달랐으며 문자의 형태 또한 달랐다.) 戰國시기 각 지역의 문자의 차이는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書同文이라는 규범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9) 章季濤 『怎樣學習《說文解字》』, 104쪽.

2) 俗體

俗體는 이미 규범화 과정을 거친 正篆인 小篆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당시 漢代의 민간에서 유행하던 일종의 通俗字를 의미한다. 이러한 俗體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說文』이다. 그러나 小篆이나 古文, 籀文 등에 비해 俗體는 일종의 비주류 문자로 여겨져 주목받지 못했다.²⁰⁾ 이들은 일반적으로 小篆에 비해 늦은 시기에 출현했으며 통속성 이외에도 편리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俗體는 한자 발전 과정에서 자형의 簡化和 形聲化의 추세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說文』 전체에는 모두 15개의 俗體가 수록되어 있으며 표현 방식은 통상 俗從某, 俗作某, 俗某字, 俗某 등으로 표기한다. 과거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俗體를 正體에 비해 다소 저속한 문자로 여겨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청대의 王筠 역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俗體의 불필요성을 논하기도 했다.

然許君收之，果何意乎。將謂使人用之，則有正字可用矣。將謂辯僞存眞，則既有所收之正字，卽不收者爲俗字矣。漢人著書體例皆然。……許君於禮經之古今文，尙且有所去取，況此無稽之俗字乎。²¹⁾ (그렇다면 허신이 이것을 수록한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정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진위를 가려내기 위함이라면 이미 수록한 정자가 있으므로 속자를 수록하지 않아도 된다. 한대 사람들의 자서 편찬 체례는 모두 이와 같다. ……허신은 예기와 같은 경전의 고급문에서 문자를 취했으니 어찌 이런 터무니없는 속자이겠는가.)

이와 같이 王筠은 俗體를 或體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俗體를 정식 字形의 일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의 관점은 부적절하다. 俗體는 『說文』의 수록 양에 있어서는 확실히 或體 등과 같은

20) 唐蘭『中國文字學』, 17쪽. 「俗文字在文字學史上應該有重要的地位，但過去沒有人注意過，這是重古輕今的毛病。」(속문자는 문자학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에는 사람들로 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이것은 옛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지금 것을 가볍게 여기는 폐해이다.)

21) 王筠『說文釋例』, 卷五, 「俗體」, 39-40쪽.

다른 重文에 비해 대단히 소량에 속한다.²²⁾ 그렇지만 이렇게 적은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許慎이 이것을 重文의 한 종류로 수록한 것에 대해 馬馭倫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許書兼取俗字, 如……, 此蓋由其字不見於史籀, 倉頡, 凡將, 訓纂及壁中書中而世俗用之, 故不得而削, 別之曰俗字.²³⁾ (『설문』에는 속자가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 이는 대개 그 글자가 사주편, 창힐편, 범장편, 훈찬편 및 벽중서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세속의 민간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기에 이를 삭제하지 않고 따로 속자라 칭한 것이다.)

당시 漢代의 통치자들은 문자 규범을 상당히 중시하여 俗字의 사용에 대해 상당히 엄격했다. 따라서 관리들이 공문 등을 작성할 때 정확한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바로 지적했다.²⁴⁾ 이러한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행하던 다른 字書에는 발견되지 않으나 대중들에 의해 분명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신중히 선별하여 소량이지만 제외하지 않고 수록한 것이다. 이것은 許慎이 문자의 雅俗을 구분하지 않고 그것의 기능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결정한 것이다. 또한 字書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도 다양한 字形을 함께 담아내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따라서 문자의 명칭을 '俗'이라 표기한 것은 이것을 正體와 구분지어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대중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俗體 대부분은 形聲字로써 두드러진 表音性을 가지고 있다.²⁵⁾ 이를 통해 漢字의 본질은 비록 表意字이나 민간 대중의 심리와 실제 활용에는 表音字의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俗體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이후 문자의 지위가

22) 통계에 따르면 俗體는 大徐本에는 15개가 수록되어 있으나 小徐本에는 24개 그리고 『說文解字注』에는 모두 400여개가 담겨있다. 이를 통해 俗體의 형성과 발전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黃宇鴻 「論『說文』俗字研究及其意義」, 76쪽.

23) 馬叙倫 『說文解字研究法』, 27쪽.

24) 許慎 『說文解字敘』 「書或不正, 輒舉劾之」.(문자가 혹시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이를 들어 잘못을 꾸짖었다.)

25) 『說文』에 수록된 小篆에서 形聲字의 비율은 대략 60% 내외이나 俗體의 形聲字 비율은 무려 90% 이상에 달한다. 이것은 俗體의 강한 表音性을 상징하는 것이다. 黃宇鴻 「論『說文』俗字研究及其意義」, 77쪽.

변하여 상당수가 正體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중 일부는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는 規範 한자에 속한다.²⁶⁾

3) 或體와 俗體의 관계

重文 연구의 기초는 그 개념과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小篆과 或體 그리고 俗體 등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일찍이 清代의 학자들은 이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說文四大家인 王筠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說文之有或體也，亦謂一字殊形而已，非分正俗於其間也。自大徐本所謂或作某者，小徐間謂之俗作某，於是好古者概視或體爲俗字，或微言以示意，或昌言以相排，是耳食也。²⁷⁾ (『설문』의 或體는 한 글자의 서로 다른 자형 일 뿐이며 그것 사이에는 正體와 俗體의 구분이 없다. 대서본에 ‘或作某’라 하고 소서본에서는 ‘俗作某’라고 하였기에 대개 옛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或體를 俗자로 여긴 것이다. 작은 말로 뜻을 드러내고 화려한 말로 서로 늘어놓으니 모두 남의 말을 귀로만 듣고 믿은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一字殊形’은 바로 지금의 異體字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처럼 王筠은 正篆인 小篆과 或體를 異體字의 관계로 보았으며 여기에는 正俗의 구분 또한 없다고 여겼다. 이러한 관점은 향후 或體와 俗體의 관계 파악에 중요한 개념을 제공하게 된다. 당시 王筠과 친밀하게 학문적 교류를 했던 許瀚은 或體와 俗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說文重文，於古文、籀文、奇字外，又有或體、俗體者，皆以紀小篆之異文也。……不惟或體非俗，即俗體亦猶之或體也。俗者，世俗所行，猶玉篇言今作某耳，非對雅正言之而斥其陋也。凡言俗者皆漢篆也。……一時有一時之俗，許君所謂俗，秦篆之俗也，而秦篆即籀文之俗，籀文即古文之俗也。²⁸⁾

26) 『說文』에 수록된 俗體 가운데 후일 正字로 변환된 것은 80% 정도에 이르며 그 중 60% 정도는 현재 規範 한자에 속한다. 黃宇鴻 「論『說文』俗字研究及其意義」, 78쪽.

27) 王筠 『說文釋例』, 卷五, 「或體」, 34-35쪽.

28) 許瀚 「與王君莒友論說文或體俗體」, 『攀古小廬』雜著卷三.

(『설문』 중문에는 고문, 주문, 기자 이외에 흑체와 속체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소전의 이체자이다. …… 흑체는 속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속체 역시 오히려 흑체가 되기도 한다. 속체는 민간에서 통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옥편』에서 ‘今作某’라는 것으로 고상하고 바른 것에 대해 누추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이러한 속체는 모두 현대의 전서체이다. ……어느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속체가 있기 마련이다. 허신이 말한 속체는 진대의 전서에 대한 속체이다. 따라서 진대의 전서는 주문의 속체이고, 주문은 다시 고문의 속체이다.)

이처럼 당시의 학자들은 重文을 기본적으로 異體字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或體는 俗體가 아니며 正體와 俗體 역시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²⁹⁾ 이처럼 청대 王筠이 或體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或體와 俗體의 개념 및 관계 파악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古文, 籀文과 篆文은 서로 다른 사용 시기로 인해 자형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나 或體와 俗體는 동일한 시기의 서로 다른 자형을 지칭한다. 혹자는 이들 사이에는 엄격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³⁰⁾ 許慎이 或體와 俗體를 구별하여 수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或體는 다양한 출처에서 선별한 당시에 존재하는 異體字로써 아마도 특별히 민간에서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비해 俗體는 당시 일반 대중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용된 字形이다. 따라서 許慎은 확실한 대중성이 있는 소수 자형을 俗體로 그리고 나머지 대량의 異體字를 或體로 분리하여 수록한 것이다. 물론 일부 或體

29) 姚孝遂 『許慎與《說文解字》』, 18-19쪽. 그는 이러한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所謂重文, 卽一字的不同形體. 此不同的形體, 包括有古文、籀文、或體、俗體等. 古文、籀文與篆文是屬於不同時期的形體上的差異, 而或體、俗體則是同一時期的不同形體. 論者以爲『或體』和『俗體』都是正規形體以外的, 屬於不正規形體的『俗書』, 這種看法是錯誤的.」(소위 중문이라는 것은 한 글자의 다른 형태로 이러한 같지 않은 형체에는 고문, 주문, 흑체, 속체 등이 있다. 고문, 주문, 전문은 서로 다른 시기의 형체상의 차이인 반면 흑체와 속체는 동일한 시기의 서로 다른 형체이다. 이러한 것을 논하는 이들이 흑체와 속체를 정규 형체 이외의 것으로 여겨 규범화 되지 않은 형체인 통속 문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0) 姚孝遂 『許慎與《說文解字》』, 19쪽. 「或體與俗體並沒有什麼嚴格的區分, 這祇能證明『或與俗』是相同的.」(흑체와 속체는 어떠한 엄격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흑체와 속체가 서로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에 俗體가 섞여있거나 혹은 俗體 가운데 或體에 준하는 문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형이 존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으로 이 둘을 동일한 개념의 자형으로 인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리하면 或體는 일정한 규범화 과정을 거쳤으며 正篆인 小篆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출처 역시 비교적 널리 사용되었던 字書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이에 반해 俗體는 좀 더 통속성과 대중성이 강한 당시 민간에서 유행하던 문자로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

4. 『說文解字』或體와 俗體의 字例 분석

이상으로 或體와 俗體의 실체 및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실제 字例를 통해서 앞서 살펴본 이것에 관한 내용을 검증하려고 한다. 『說文』 重文 가운데 古文과 籀文은 古文字와의 연계성이 이미 상당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或體는 이것의 정확한 실체 및 古文字와의 관계 여부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或體와 正篆인 小篆을 비교하는 것과 동시에 金文과 戰國文字 등을 활용하여 或體와 古文字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종전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古文과 籀文 그리고 或體와의 관계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字例 연구의 대상은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說文』第一篇에서 第四篇 사이에서 或體와 古文 또는 或體와 籀文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字例만을 모두 선별하여 분석한다. 이처럼 古文 또는 籀文과 或體가 동시에 발견되는 字例 전체를 선별한 것은 고문자와의 관계 파악을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金文과 戰國文字 자형을 함께 수록하여 비교한다.³²⁾ 한편 俗體는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說文』 전체에 수록된 字例 모두를 연구 대상

31) 馬叙倫 『說文解字研究法』, 27쪽. 「倫以爲或字者, 蓋出凡將訓篆中.」(본인의 생각으로는 혹체는 『법장편』과 『훈찬편』에서 나온 것이다.)

32) 인용하고 있는 고문자의 출처는 容庚 『金文編』(中華書局, 1985.)과 湯餘惠 『戰國文字編』(福建人民出版社, 2005.)을 따른다. 한편 『金文編』에 수록된 일부 銘文은 西周 金文뿐만 아니라 戰國시기의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으로 삼는다. 이러한 선정 결과를 통해 或體 字例 15개와 俗體 字例 15개가 본고의 연구 대상이다.

1) 或體의 字例

(1) 卷一, 示部

禮(禱), 告事求福也. 從示壽聲. 禱禱或省. 𡇗籀文禱.

小篆	禮(禱)		
或體	禱		
籀文	𡇗		
金文(壽)	𡇗 <沈子它簋>	𡇗 <仲師父鼎>	𡇗 <蔡大師鼎>
戰國文字	禮 <天星>	𡇗 <包山>	𡇗 <包山>

籀文에는 從眞從父의 구조가 첨가되었다. 이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³³⁾ 金文에서는 禱를 찾을 수 없어 이것의 편방인 壽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籀文과 일정 부분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언급한 籀文과 西周시기 문자와의 연계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或體는 小篆에 비해 일부 편방을 생략하여 간단한 자형이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簡化된 或體와 戰國文字 사이에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戰國文字 𡇗는 示의 편방이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형태는 편방이 좌우로 배치된 或體 禱와 동일하다.

33) 李恩江, 賈玉民 『說文解字』, 11쪽.

(2) 卷一, 艸部

𦵑(薺), 拔去田艸也. 從蓐, 好省聲. 𦵑 籀文, 薺省. 𦵑 薺或從休. 詩曰, 既沬茶蓼.

小篆	𦵑 (薺)
或體	𦵑
籀文	𦵑
金文(辱)	𦵑 (臣辰盃) 𦵑 (方彝) 𦵑 (泉伯簋)
戰國文字(辱)	𦵑 (雲夢) 𦵑 (包山)

金文에서 薺를 찾을 수 없어 이것의 편방인 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籀文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籀文 𦵑에서 從艸와 從女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략한 나머지 자형은 金文 𦵑과 대단히 흡사하다. 따라서 이것 역시 籀文과 西周 金文이 일치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이후 등장하는 戰國文字는 金文에 비해서는 籀文과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진다. 或體는 小篆의 편방 중 從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교체하여 대단히 簡化된 형태의 𦵑가 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會意兼形聲으로 풀(艸)이 자라는 것을 멈추게(休) 하므로 잡초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休는 聲符이기도 하다. 『說文』에서 인용하고 있는 『詩經』은 오류가 있으며 원문은 『周頌良耜』편의 「以薺茶蓼」(논밭의 잡초를 매고)이다. 이를 통해 고대에는 김을 맨다는 뜻의 薺와 𦵑를 통용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卷二, 采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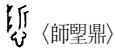





番(番), 獸足謂之番. 從采, 田象其掌. 𠩺番或從足, 從煩. 𠩺古文番.

小篆	番(番)
或體	𠩺
古文	𠩺
金文	番(魯侯鬲) 番(番君召鼎) 番(白者君盤)
戰國文字	番(包山) 番(璽策)

『說文』에서는 番을 동물의 발톱[采]과 발바닥[田]을 본떠 만든 ‘동물의 발’(獸足)이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或體는 이러한 字義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발을 나타내는 形符인 從足과 聲符인 從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或體는 正篆인 小篆에 비해 자형이 간단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字例와 같이 繁化되는 경우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본 글자로는 本義를 바로 알 수 없어 形聲字의 형태로 字義와 字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異體字가 만들어진 것이다. 나머지 古文 𠩺은 동물의 발의 형태를 본뜬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古文은 戰國文字와 연계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番의 戰國文字는 古文 보다는 小篆에 가깝다.

(4) 卷二, 口部

𠄎 (哲), 知也. 從口折聲. 𠄎 哲或從心. 𠄎 古文哲, 從三吉.

小篆	 (哲)
或體	
古文	
金文	 〈師聖鼎〉  〈克鼎〉  〈王孫鐘〉
戰國文字	 〈王孫遣者鐘〉  〈璽堯〉  〈璽堯〉

金文과 戰國文字를 살펴보면 대부분 或體와 같이 아래쪽 편방이 從心으로 이루어진 𠄎의 구조이다.³⁴⁾ 段玉裁는 注에서 「按心部云. 𠄎, 敬也. 疑敬是本義, 以爲哲是假借.」(心 부수에서 𠄎은 공경하는 것이라 하였다. 아마도 敬이 본의이고 𠄎은 가차일 것이다.) 즉 공경의 뜻을 가지고 있는 𠄎이 본 글자이고 𠄎은 이것의 同音假借로 여긴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 字例에서는 小篆보다 或體가 더욱 원형의 字形과 本義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正篆이 원류이고 或體는 여기서 파생된 단순한 異體라는 시각을 삼가야 한다. 또한 古文이나 籀文과 마찬가지로 일부 或體는 古文字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세 개의 吉로 이루어진 古文은 戰國文字와 관련지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古文과 戰國文字가 불일치하는 사례에 속한다. 현재는 從三吉의 자형보다는 從二吉로 이루어진 𠄎이 주로 사용된다.

34) 容庚『金文編』, 卷二, 編號0132. 容庚은 「說文, 知也. 重文作𠄎, 又心部𠄎, 敬也.」(『說文』에서는 현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중문은 𠄎이며 心 부수에 있는 𠄎은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5) 卷二, 辵部

𨇔(迹), 步處也. 從辵亦聲. 𨇔或從足, 責. 𨇔籀文迹, 從東.

小篆	𨇔(迹)
或體	𨇔
籀文	𨇔
金文	𨇔〈五年師簋〉 𨇔〈五年師簋〉 𨇔〈師簋〉
戰國文字	𨇔〈雲夢〉 𨇔〈壘壘〉

許慎은 迹을 ‘발자취’(步處也)라고 하였다. 따라서 或體는 이러한 字義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形符를 발을 나타내는 從足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聲符인 從責이 더해져 蹟이 되었다. 이처럼 본 글자에 비해 편방을 통해 본뜻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지만 或體의 자형은 결과적으로 좀 더 繁化되었다. 따라서 或體는 小篆에 비해 반드시 字形이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或體는 字形을 簡化하여 인지를 돕거나 혹은 字形이 다소 복잡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金文은 從辵從東으로 이루어졌으며 籀文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것은 西周 金文과 籀文이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³⁵⁾

35) 容庚『金文編』, 卷二, 編號0201. 容庚은 「說文籀文從辵作𨇔」(『說文』의 주문은 從辵으로 구성된 𨇔이다.)라고 하였다.

(6) 卷二, 辵部

𨔵(迨), 往也. 從辵且聲. 迨, 齊語. 𨔵 迨或從彳. 𨔵 籀文, 從虛.

小篆	𨔵(迨)		
或體	𨔵		
籀文	𨔵		
金文(虛)	𨔵 (孟鼎二)	𨔵 (大師豆)	𨔵 (君鉦)
戰國文字	𨔵 (包山)		

許慎은 迨를 ‘가다’(往也)라고 하였다. 或體는 이러한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다’라는 의미와 연관이 있는 從彳를 形符로 그리고 從且를 聲符로 하는 迨가 되었다. 小篆과 或體 모두 자형이 비교적 간단하여 이해가 용이하다. 『玉篇辵部』에도 「迨, 往也. 與迨字同.」이라고 하여 迨와 迨가 같은 글자임을 밝히고 있다. 從虛으로 이루어진 籀文에 비해 규범화를 거치며 小篆은 자형이 簡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金文의 虛와 籀文의 해당 편방을 비교하면 동일하다. 또한 위에 수록된 戰國文字는 『說文』에서 말한 「𨔵, 籀文, 從虛」에 해당하는 것이다.³⁶⁾ 이처럼 일반적으로 籀文은 金文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戰國文字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발견된다.

36) 湯餘惠『戰國文字編』, 卷二, 91쪽.

(7) 卷二, 辵部



𨇗(述), 述也. 從辵止聲. 𨇗徙或從彳. 𨇗古文徙.

小篆	𨇗(述)
或體	𨇗
古文	𨇗
金文(徙)	𨇗(徙瓠) 𨇗(徙𨇗)
戰國文字	𨇗(雲夢) 𨇗(包山) 𨇗(鹽集)

許慎은 述을 ‘옮기는 것’(述也)이라고 하였다. 小篆의 從辵과 或體의 從彳은 모두 움직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從止聲의 聲符는 그대로 유지한 채 뜻이 상관있는 形符를 교체하여 或體가 되었다. 小篆과 或體 모두 자형이 간단하고 이해가 용이하다. 또한 金文 𨇗과 戰國文字 𨇗는 모두 從彳從步로 이루어져 현재의 徙의 구조와 같다.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에서 「今隸體作徙, 不作述」라고 하여 隸書 이후 述에서 徙로 자형이 정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古文의 省文인 屎에 대해 桂馥은 『說文解字義證』에서 「借徙字也」라고 하였다. 즉 重文인 古文을 徙의 假借字로 여긴 것이다. 이러한 假借 관계로 인해 본 字例에서는 古文과 戰國文字의 자형 사이에 연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8) 卷二, 辵部

遲(遲), 徐行也. 從辵犀聲. 詩曰, 行道遲遲. 𨔵遲或從巨, 𨔵籀文遲, 從犀.

小篆	遲(遲)		
或體	𨔵		
籀文	𨔵		
金文	𨔵 <仲父簋>	𨔵 <伯父鼎>	𨔵 <元年師簋>
戰國文字	 <王孫誥鐘>	 <曾侯乙鐘>	𨔵 <包山> 𨔵 <郭店>

或體는 小篆의 從犀에서 從巨로 바뀌었다. 이것은 或體가 正篆에 비해 자형이 간략하여 알기 쉬운 異體字라는 일반적인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玉篇』 등의 字書에서 從巨는 從尼와 같은 편방으로 사용된다. 籀文은 從犀의 구조로써 金文과 완전히 일치한다.³⁷⁾ 따라서 이것은 籀文과 西周시기의 문자가 일치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한편 위에 수록된 戰國文字 중 <曾侯乙鐘>은 『說文』에서 말한 「籀文遲, 從犀」에 해당하는 것이며, <包山>은 或體인 「遲或從巨」에 해당하는 자형이다.³⁸⁾ 이를 통해서 일부 籀文은 金文뿐만 아니라 戰國文字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或體는 단순한 小篆의 異體가 아니라 戰國文字 등의 古文字 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容庚 『金文編』, 卷二, 編號0228. 容庚은 「說文籀文從犀而篆文從巨」(『說文』의 주문은 從犀로 구성되나 소전은 從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38) 湯餘惠 『戰國文字編』, 卷二, 97쪽.

(9) 卷二, 彳部

𨾏(復), 卻也. 一曰行遲也. 從彳從日從夂. 𨾏復或從內. 𨾏古文從辵.

小篆	𨾏(復)	
或體	𨾏	
古文	𨾏	
金文	𨾏 <中山王壺>	𨾏 <中山王兆域圖>
戰國文字	𨾏 <郭店>	𨾏 <郭店> 𨾏 <行氣玉銘>

復의 小篆은 戰國文字에 비해 규범화 과정을 거치며 從止의 편방이 생략되었다. 따라서 자형의 구조 역시 許慎이 분석한 從彳從日從夂가 아닌 從彳從夂從日省으로 보아야 한다.³⁹⁾ 或體는 小篆의 從夂從日省에서 從內로 자형이 변하였다. 宋保의 『諧聲補逸』에 따르면 復의 구조 중 從夂는 亦聲字로 夂와 內는 同部聲近의 관계라고 하였다.⁴⁰⁾ 이로써 或體에 이르러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간단한 편방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集韻』에는 「復, 隸作退」라고 하여 小篆의 復가 隸書 이후 退로 정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說文』의 古文이 바로 從辵으로 이루어진 退의 구조이며 이것은 戰國文字와 완전히 일치한다.⁴¹⁾ 이것은 바로 古文과 戰國文字가 같은 계통임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39) 董蓮池 『說文解字考正』, 72쪽.

40) 李翰文 『說文解字』, 157쪽.

41) 容庚 『金文編』, 卷二, 編號0271. 容庚 또한 「說文古文, 從辵作退, 隸作退」라고 하여 『說文』의 古文이 바로 退와 같음을 지적하였다.

(10) 卷三, 言部

諄(諄), 亂也. 從言字聲. 諄諄或從心. 諄 籀文諄, 從二或.

小篆	諄 (諄)		
或體	諄		
籀文	諄		
金文(或)	諄 (呂仲爵)	諄 (衛盂)	諄 (毛公鼎)
戰國文字(或)	諄 (雲夢) 諄 (郭店)		

或體 諄는 小篆의 從言이 從心으로 교체되어 이루어졌다. 言과 心은 특별한 字義의 연관성은 없다. 따라서 이것은 或體의 사례 중 단순한 小篆의 異體字에 속한다. 한편 籀文은 二或으로 구성되었으며 段玉裁는 이에 대해 注에서 「兩國相違, 舉戈相向, 亂之意也.」(두 나라가 서로 거스르며 창을 들어 상대를 향하고 있다. 變亂의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즉 許慎이 풀이한 諄의 字義를 가지고 籀文의 字형을 설명한 것이다. 이처럼 或은 나라인 國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金文과 戰國文字의 或은 籀文의 字형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

(11) 卷三, 昇部

𨾏(𨾏), 升高也, 從昇囟聲. 𨾏(𨾏)或從口. 𨾏(𨾏)古文𨾏.

小篆	𨾏(𨾏)
或體	𨾏
古文	𨾏
金文	無
戰國文字	無

許慎은 𨾏을 '높이 오르는 것'(升高也)이라고 하였으며 段玉裁는 注에서 𨾏과 辵部의 遷은 字音과 字義가 같다고 하였다. 王筠 역시 『說文釋例』에서 𨾏에 從口과 從辵을 더하면 이것이 바로 遷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小篆은 規範화를 거치며 或體에 비해 자형이 일정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或體가 正篆인 小篆에 비해 자형이 좀 더 복잡한 사례에 속한다. 한편 古文은 小篆이나 或體에 비해 더욱 繁化된 형태로 발견되며 이것과 戰國文字와의 연계성은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한다.

(12) 卷三, 革部

鞀(鞀), 鞀遼也. 從革召聲. 鞀 鞀或從兆. 鞀 鞀或從鼓, 從兆. 鞀 鞀文鞀, 從鞀召.

小篆	鞀 (鞀)
或體	鞀 / 鞀
籀文	鞀
金文	無
戰國文字	鞀 (包山)

鞀는 타악기인 북의 일종이다. 『周禮春官』鄭玄의 注에 따르면 「鞀如鼓而小, 持其柄搖之, 旁耳還自擊。」(鞀는 소고의 일종으로 북자루를 잡고 흔들면 둘레의 귀처럼 달린 구슬이 북면을 치면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였다. 첫 번째 或體는 북의 재질인 가죽을 나타내는 從革의 形符와 聲符인 從兆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或體는 직접적으로 북을 나타내는 從鼓의 形符와 역시 聲符인 從兆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或體와 小篆은 모두 자형이 비교적 단순하다. 이로 미루어 이것은 단순한 異體字로써의 或體이다. 두 번째 或體는 從鼓從兆의 鞀와 같은 구조로써 字義를 보다 선명히 알 수 있도록 小篆에 비해 繁化되었다.⁴²⁾ 따라서 或體가 小篆에 비해 반드시 간략하다는 설명은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에 수록된 戰國文字는 『說文』에서 말한 「鞀或從兆……或從鼓, 從兆」에 해당하는 것으로⁴³⁾ 從鼓從兆에 해당하는 자형은 鞀이다. 이처럼 일부 或體는 단순한 小篆의 異體가 아니라 古文字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한편 籀文 역시 從鞀의 形符로 악기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從召는 聲符이다. 이처럼 小篆에 비해 籀文은 자형이 다소 복잡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42) 『集韻』에 따르면 「鞀, 鼓名, 亦書作鞀。」(鞀는 북의 명칭으로 鞀로도 적는다)라고 하였다.

43) 湯餘惠 『戰國文字編』, 卷三, 169쪽.

(13) 卷三, 又部

𦵏(棼), 掃竹也, 從又持𦵏. 𦵏棼或從竹. 𦵏古文棼, 從竹從習.

小篆	𦵏(棼)
或體	𦵏
古文	𦵏
金文	無
戰國文字	𦵏(隨縣)

許慎은 棼를 '빗자루'(掃竹也)라고 하였다. 或體는 여기에 대나무를 뜻하는 從竹의 偏旁을 추가하여 字義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일부 或體는 자형이 다소 복잡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글자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異體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或體의 모든 자형이 小篆의 簡化된 구조는 아닌 것이다. 또한 본 字例에서는 戰國文字의 자형과 或體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로써 或體 중 古文字와 관련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古文에 대해 段玉裁는 注에서 從習에 해당하는 偏旁을 合韻되는 聲符로 보았다. 즉 從竹, 從習聲의 구조로 여겼다.

(14) 卷四, 隹部










雇(雇), 九雇. 農桑候鳥, 扈民不姪者也. 從隹戶聲. 𪔑雇或從雩. 𪔒籀文雇, 從鳥.

小篆	雇(雇)		
或體	𪔑		
籀文	𪔒		
金文(隹)	𪔓 <宰角>	𪔔 <乙亥鼎>	𪔕 <臣辰盃>
戰國文字	𪔖 <包山> 𪔗 <包山>		

許慎의 풀이에 따르면 雇는 새의 일종으로 從隹戶聲의 形聲字이다. 이것의 或體는 形符인 從鳥와 聲符인 從雩의 구조이다. 이를 통해 形符와 聲符 모두 或體가 小篆에 비해 繁化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또한 간략한 자형으로 알려진 或體의 字例에서 벗어나는 예이다. 한편 『玉篇·隹部』에 따르면 雇와 從戶從鳥의 구조로 이루어진 자형은 동일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籀文과 小篆은 동일한 문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小篆에서는 從鳥의 편방이 동일한 새를 나타내는 從隹로 교체되어 보다 簡化되었다. 籀文과 金文의 자형은 역시 유사성이 발견된다.

(15) 卷四, 鳥部

鷩(鷩), 鳥也. 從鳥堇聲. 鷩鷩或從隹. 鷩 古文鷩. 鷩 古文鷩. 鷩 古文鷩.

小篆			
或體			
古文			
金文(堇)	 <堇伯鼎>	 <堇鼎>	 <召伯簋二>
戰國文字(堇)	 <郭店>	 <郭店>	 <陳曼>

或體에서는 小篆의 從鳥 편방이 동일한 의미의 從隹로 교체되어 자형이 다소 간략해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이것은 小篆과 단순한 異體 관계의 或體 字例에 속한다. 段玉裁는 注에서 鷩에 대해 「今爲難易字」라 하여 이것을 難의 古文으로 보았다. 『金文編』에서는 堇의 구조에 대해 「從黃省, 下從火, 或土」라고 하였다.⁴⁴⁾ 세 종류의 자형이 수록된 古文의 聲符인 從堇은 일부 訛變되었지만 戰國文字와는 여전히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古文과 戰國文字와의 연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2) 俗體의 字例

(1) 卷三, 言部

讖(讖), 誕也, 從言敢聲. 讖, 俗讖, 從忘.

『直音篇』에 따르면 讖과 從言從忘으로 이루어진 讖는 同字라고 하였다.⁴⁵⁾ 이

44) 容庚 『金文編』, 卷十三, 編號2189.

45) 『中華字海』, 1462쪽.

를 통해 이들이 민간에서는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聲符인 敢과 忘은 音韻 관계가 성립되어 교체가 가능하며 俗體가 正篆에 비해 자형이 간단하여 알아보기가 더욱 용이하다.

(2) 卷四, 肉部

𠂔(肩), 膊也. 從肉, 象形. 𠂔, 俗肩, 從戶.

『說文』에서는 肩을 ‘어깨(膊也)’라고 풀이하였다. 肩의 속체인 肩은 위쪽 편방을 戶로 간략히 줄여 正篆에 비해 자형이 간단하여 알아보기가 더욱 용이하다.

(3) 卷四, 角部

觶(觶), 兕牛角可以飲者也. 從角黃聲. 其狀觶觶, 故謂之觶. 𩑦, 俗觶, 從光.

觶과 속체인 觥(뿔잔 꺾)은 모두 뿔로 만든 술잔을 의미하는 것으로 聲符인 黃이 光으로 변하였다. 이 둘은 모두 音韻 관계가 성립되어 교체가 가능하며 正篆에 비해 자형 또한 간단하여 알아보기가 더욱 용이하다.

(4) 卷五, 血部

𩑦(腫), 腫血也. 從血, 農省聲. 𩑦, 俗腫, 從肉農聲.

『說文』에서는 腫을 ‘중기에 난 고름(腫血也)’이라고 풀이하였다. 腫의 속체인 膿(고름 농)은 중기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形符를 從肉으로 하였으며 聲符 역시 農을 간략히 줄여 從農聲으로 하였다. 이로써 字義와 字音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正篆에 비해 자형 또한 간단해지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5) 卷七, 弓部

𩑦(函), 舌也. 象形. 舌體弓弓. 從弓, 弓亦聲. 𩑦, 俗函, 從肉今.

函의 갑골문 𩑦, 𩑦은 화살이 담겨있는 자루나 그릇의 형상을 본뜬 것이다.⁴⁶⁾

이러한 本義에서 물건을 담는 함, 봉투, ‘물건을 담다’와 같은 확장된 뜻을 가지게 되었다. 函(함 함)의 本字로 『說文』에서 이것을 ‘혀’(舌也)로 풀이한 것은 오류이다. 俗體인 脢(거들 금/혀 함)은 脢을 신체 기관으로 여긴 許慎의 풀이에 충실하여 從肉으로 적었으며 발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聲符 또한 從今으로 하였다. 결국 俗體인 脢은 本義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字義와 字音を 쉽게 이해하고 字形을 간략히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俗體의 발생에 甲骨文과 같은 고문자의 영향이 반드시 미치지 않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6) 卷七, 鼎部

𩰫(肅), 鼎之圓掩上者. 從鼎才聲. 詩曰, 鼐鼎及肅. 𩰫(俗肅), 從金從茲.

肅(옹달술 자)의 속체인 𩰫(호미 자)는 청동기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形符를 從金으로 하였으며 聲符 역시 쉽게 알기 위하여 從茲로 하였다. 따라서 俗體는 聲符와 形符를 모두 교체한 예이다. 이로써 字義와 字音を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正篆에 비해 자형 또한 간단해지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7) 卷七, 尗部

𣎵(枝), 配鹽幽尗也. 從尗支聲. 𣎵(俗枝), 從豆.

『說文』에서는 枝을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의 일종인 豆豉로 보았으며 그래서 尗(콩 숙)을 形符로 삼았다. 枝의 속체인 𣎵(메주 시)는 재료인 콩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形符를 從豆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字義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

(8) 卷八, 衣部

𦑔(褻), 袂也. 從衣采聲. 𦑔(俗褻), 從由.

『說文』에서는 ‘소매’(袂也)라고 풀이하었다. 褻(소매 수)의 속체인 袖(소매 수)

46) 徐中舒 『甲骨文字典』, 756쪽.

는 발음을 쉽게 알기 위하여 聲符가 從采에서 從由로 변하였다. 이로써 字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正篆에 비해 자형 또한 간단해지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9) 卷八, 尸部

𠩺(居), 蹲也. 從尸古者, 居從古. 𠩺, 俗居, 從足.

『說文』에서는 居를 ‘쪼그리고 앉다’(蹲也)라고 풀이하였다. 자형의 구조는 從尸古者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俗體 자형 풀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從尸古聲의 形聲으로 보는 것이 옳다.⁴⁷⁾ 居의 속체인 踞(걸어앉을 거)는 웅크리고 앉는다는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形符를 從足으로 첨가하여 字義를 좀 더 분명히 하였다. 일반적으로 俗體는 正篆에 비해 자형이 간단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字例를 통해 민간인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새로운 形符를 첨가하는 사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10) 卷八, 先部

𠩺(先), 首笄也. 從人, 匕象簪形. 凡先之屬皆從先. 𠩺, 俗先, 從竹從瞢.

『說文』에서는 ‘머리에 꽂는 비녀’(首笄也)라고 풀이하였다. 俗體인 簪(비녀 잠)은 從竹과 從瞢으로 이루어진 形聲字이다. 先(비녀 잠)이 先[먼저 선]과 유사하여 이를 구별하기 위해 민간에서는 繁化된 자형을 사용했다. 장신구인 비녀의 재질을 표시하기 위해 形符를 從竹으로 하여 字義를 좀 더 분명히 하였으며 聲符 또한 正篆에 비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從瞢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俗體는 자형이 간단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민간인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形符와 聲符가 첨가된 예이다.

47) 嚴可均是『說文校議』에서「說解有脫誤, 當作從尸古聲」(글자 풀이에 탈오가 있으니 從尸古聲으로 고쳐야 한다)라고 하였다. 段玉裁는『說文解字注』에서「各本作古者居從古, 垂於全書之例, 淺人因下云俗居從足而竄改譌耳」(각 판본에서 古者, 居從古라고 한 것은 전체 자서의 체례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식견이 좁은 이들이 속체 居를 從足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기에 이에 따라 잘못 고쳤을 따름이다.)

(11) 卷八, 欠部

𦣻(𦣻), 𦣻也. 從欠龜聲. 𦣻, 俗𦣻, 從口從就.

『說文』에서는 ‘입을 맞추는 것’(𦣻也)이라고 하였다. 俗體인 𦣻[입 맞출 축]은 입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形符를 從口로 하였으며 聲符 역시 복잡한 從龜에서 간단한 從就로 변화하였다. 이로써 字義와 字音を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正篆에 비해 자형 또한 대단히 간단해지게 되었다.

(12) 卷九, 印部

𢶏(印), 按也. 從反印. 𢶏, 俗從手.

𢶏은 印[도장 인]과 같은 글자로 抑[누를 억]의 초기 문자이다.⁴⁸⁾ 갑골문 扌은 손(爪)과 무릎 꿇은 사람(口)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손으로 힘을 행사하여 사람을 꿇어앉혀 굴복시키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俗體는 從手의 편방을 더하여 字義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13) 卷十一, 水部

灑(灑), 水濡而乾也. 從水鷄聲. 詩曰, 灑其乾矣. 灑, 俗灑, 從隹.

『說文』에서는 ‘물이 넘쳐 초목이 시드는 것’(水濡而乾也)이라고 하였다. 俗體인 灑[여울 탄]은 正篆의 편방 從鳥가 從隹로 변화하였다. 문자의 변천 과정에서 의미가 서로 통하는 편방이 互用되는 것은 대단히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로써 자형이 다소 간략하게 되었으며 從水從難聲의 구조가 되어 字義와 字音 또한 비교적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

(14) 卷十一, 尗部

𦣻(冰), 水堅也. 從尗從水. 𦣻, 俗冰, 從疑.

『說文』에서는 ‘물이 굳는 것’(水堅也)이라고 하였다. 尗은 얼음을 나타내는 象

48) 董蓮池 『說文解字考正』, 360쪽.

形이고 冰은 會意이며 속체인 凝은 形聲이다. 이처럼 일부 俗體는 여러 造字 과정을 거치며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속체인 凝[영길 응]은 얼음 역시 물이 엉겨 얼어붙는 현상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민간에서는 이와 같은 字義로도 사용했다. 또한 본 字例를 통해 모든 俗體의 자형이 正篆에 비해서 반드시 簡化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5) 卷十三, 蝨部

𧈧(蝨), 齧人飛蟲. 從蝨民聲. 𧈧, 蟲或從昏, 以昏時出也. 𧈧 俗蝨, 從虫從文.

『說文』에서는 ‘사람을 무는 날벌레’(齧人飛蟲)라고 하였다. 俗體인 蚊[모기 문]은 벌레의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자형이 간략히 되는 과정에서 從蝨이 從虫으로 되었으며 聲符 역시 從民에서 從文으로 이해하기 쉽게 변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字義와 字음을 쉽게 알 수 있으며 字形 또한 간단하여 알아보기가 더욱 쉽게 되었다.

5. 結 論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說文』에는 다양한 종류의 重文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내용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古文과 籀文은 서로 다른 시기의 자형이 같지 않은 문자이며 이에 반해 或體와 俗體는 동일한 시기에 사용되었던 異形의 문자이다. 또한 그 연원 역시 차이가 있어서 古文은 戰國文字로부터 그리고 籀文은 西周 金文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 或體는 고대 字書와 같은 典籍으로부터 취한 것이 다수이고 俗體는 당시 주로 民間에서 통용되던 문자를 모아놓은 것이다. 물론 대량의 或體 중에는 여전히 俗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당시 민간에서는 或體에 비해 俗體가 더욱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或體는 許慎이 자료를 취합하여 자형이 같지 않은 것을

선별한 것으로 문자통일 정책에 의한 규범화를 거치지 않은, 小篆에 대한 異體字로 볼 수 있다. 또한 俗體는 역시 正篆인 小篆에 상대되는 개념의 通俗字로써 일반적으로 小篆에 비해 자형이 간단하며 발음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의 검증 이외에도 실제 字例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小篆에 비해 字形이 더욱 복잡한 或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或體는 字形이 다소 복잡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문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或體의 모든 자형을 小篆의 簡化된 구조로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古文이나 籀文과 같이 일부 或體는 분명하게 고문자와의 연계성이 발견되는 字例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說文』에 대량으로 수록되어 있는 或體의 문자학적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俗體의 字例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언어의 기록 수단으로써 文字가 어떻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表意文字에서 表音文字로의 전환, 그리고 지금의 簡化字 탄생의 사고의 전환 등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說文』은 문자의 本義를 밝히고자 노력한 중국 최초의 字書이다. 이와 같은 字書의 본래 목적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字形을 수록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許慎이 표제자인 小篆 이외에 重文을 수록한 것은 명실상부하게 字書의 본래 취지를 살린 적절한 體例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重文 가운데 古文이나 籀文 등에 비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或體나 俗體 등을 통해 중국문자의 실체를 밝힌다면 향후 문자학 연구에 적지 않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參考文獻〉

- 姚孝遂, 『許慎與《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83.
 容庚,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1985.
 許瀚, 『攀古小廬』, 濟南: 齊魯書社, 1985.

- 馬叙倫,『說文解字研究法』,香港:香港太平書局,1985.
- 沈兼士,『沈兼士學術論文集』,北京:中華書局,1986.
- 王筠,『說文釋例』,北京:中華書局,1988.
- 蔣善國,『說文解字講稿』,北京:語文出版社,1988.
- 唐蘭,『中國文字學』,香港:香港太平書局,1988.
- 王鳳陽,『漢字學』,吉林:吉林文史出版社,1989.
- 許慎著,段玉裁注『說文解字注』,臺北:書銘出版公司,1992.
- 章季濤,『怎樣學習《說文解字》』,臺北:群玉堂出版公司,1992.
- 徐中舒,『甲骨文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1993.
- 王國維,『觀堂集林』,北京:中華書局,1994.
- 冷玉龍等,『中華字海』,北京:中華書局,1996.
- 祝敏申,『《說文解字》與中國古文字學』,上海:復旦大學出版社,1998.
- 李恩江,賈玉民『說文解字』,鄭州:中原農民出版社,2000.
- 董蓮池,『說文解字考正』,北京:作家出版社,2005.
- 湯餘惠,『戰國文字編』,福州:福建人民出版社,2005.
- 李翰文,『說文解字』,北京:九州出版社,2006.
- 黃宇鴻,「論『說文』俗字研究及其意義」,『河南師範大學學報』,第29卷6期,2002.
- 張曉明,李薇「從『說文』重文看漢字字際關係的研究」,『山東理工大學學報』第20卷:第4期,2004.
- 吳濟仲,「『說文解字』古文의 內容 및 字例 분석」,『中語中文學』제44집,2009.
- 吳濟仲,「『說文解字』籀文과『史籀篇』연구」,『中國言語研究』제30집,2009.

〈中文提要〉

『說文』正文里面,除了小篆以外,附录的一些异体字叫做重文。重文的种类有篆文、古文、籀文、俗体、或体等都有,其中对古文字研究最重要的字形就是古文和籀文。西汉时代孔壁中发见的经书,汉代人称它为古文。籀文大部分和两周金文相合。这可以证明太史籀当时西周通行的古文整理出籀文的时候,受到青铜器铭文的影响。但是,有些重文没有受到瞩目,这就是或体和俗体。或体是『說文』中数量最多的一种字体,许慎在古书中挑选出来的字体,它不同于正篆,也不同于其他古籀文,就正篆的异体。俗体是流行于民间的一种通俗字体,它具有通俗性、简易性、表音性的特征。本论文以『說文』从第一篇到第四篇中收录的十

五个或体和『说文』全书中十五个俗体为对象, 和西周金文及战国文字进行字形的比较分析, 导出一些可观的结果。

關鍵詞: 說文解字, 重文, 或體, 俗體, 異體字

이 논문은 2015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5년 2월 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